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성령강림절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부활절은 구원주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령강림절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 오늘은 젊은이(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1부 예배(11:00시) : 젊은이사랑방 주관. 성찬식
2부 예배(14:00시) : 늘푸른사랑방 주관. 성찬식. 성년 의탁기도
- 성서일기 범위가 창세기를 마치고, 25일(화)부터 사도행전으로 바뀝니다.
금년 생활표어에 충실하는 성서일기 쓰기와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1 호

2021년 5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이 하나도 없다

멋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주간 동안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학습시간을 가졌습니다. 체험학습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전과 희망을 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학생들과 상의해서 가 볼 만 한 북카페를 가자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특별한 북카페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북카페들을 조사해보고 속소에 멀지 않는 “카페 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비가 오는 오후라서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움 주인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 주면서 카페 움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소개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던 남편과 스포츠 에어로빅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아내는 도시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기 마지막 무렵, 아내가 신종플루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들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부터 “제주에 내려가서 살자”던 남편은 아내의 병환과 함께 제주행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신종플루는 완치되었지만, 그동안 바빴던 생활 탓에 큰 병을 이겨내고 나니, 몸의 약한 부분에서 쉬어 달라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제주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에 내려올 당시, 살 거처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금의 카페 자리도 눈여겨봤습니다. 처음부터 제주를 내려오면 카페를 하자 마음먹지 않았기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손수 카페 공간을 꾸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카페 공간이 완성되기까지 4년의 세월이 걸렸으니,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하나로 카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던 남편은, 버려진 나무

와 팔레트, 유리병, 와인병 등... 버려진 제품들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인테리어에 중심을 두고 카페 공간을 하나하나 꾸며나갔습니다. 카페 주인은 예쁜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술집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고, 물론 돈도 잘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부부의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은 몇 번 큰 사고를 냈고, 부부는 갈수록 돈을 잘 벌었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의 고민과 기도 덕분에 술집 자리는 아름다운 북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독교 서적들과 일반 서적들을 배치했습니다. 카페에는 간단한 식사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카페 움의 인기 메뉴는 통오징어 떡볶이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먹는 스펀마요덮밥 또한 최고의 궁합을 이룹니다. 이제 오픈한 지 3개월이 된 카페 움. 그들의 메뉴는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카페의 기초부터 손수 지었던 남편은, 지금 마당에 화덕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곧 카페 움에서 더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템포 늦은 삶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내려온 제주에서, 주위의 제주 원주민들과 인연을 맺으며 매일 배움을 얻고 있다 합니다. 제주 사람들의 강인함과 검소함을 통해, 그동안 부족한 것 없이 어찌면 조금은 넘치도록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제주로 와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며, 배우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 움은 다양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방황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카페 주인 부부는 몇 십 개의 나라들을 여행한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포자기로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이 하나도 없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작은 북카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40명을 넘었다고 주인부부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디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
< 창세기 45장 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창세기 45장

제목 :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79 382 408 549 380 543

1. 내용관찰(What)

- 1-8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종으로 팔려왔다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 9-15 처음으로 얼굴을 본 형제들은 서로를 확인합니다.
- 16-20 바로와 신하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 21-28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을 입혀주며 서로 닳하지 말라 합니다.

2. 내용의 의미(Why)

- 1)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신앙적 의미에서 재해석합니다.
- 2) 37장에서 증오와 시기는 사라지고 눈물과 용납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 3) 요셉과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4) 요셉은 죄가 드러나고 수치심에 고개들지 못하는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화해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봅시다.
- 2) 용서란 과거의 사건이 더이상 미래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3) 요셉처럼 신실하게 자신의 말은 일들을 해 나갑시다.
- 4) 우리는 서로에게 요셉과 같이 용납하며 화해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습하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피드백

성령강림주일과 젊은이주일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주보 글을 적게 되었다. 막상 글을 시작하려 하니 어떤 내용을 나눠야 좋을지 꽤나 고민이 됐지만 “읽기 쉬운 글이 좋은 글이다.”라는 말처럼 읽기 쉽고 얘기하기 편한 내 근황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시간을 거슬러, 멧쟁이학교를 졸업하고 난 바로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멧쟁이학교를 다니며 시작된 대학교를 꼭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디자인을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싶다”와 “학생 신분을 조금 더 길게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해답을 얻었다. 약 1년간 ‘깨진 항아리 같은 내 머리에 물 붓듯’ 공부하기를 반복하며 공부의 단맛과 쓴맛을 비싸게 경험했다. 모자람 없이 사랑으로, 물질로 채워주신 가족들, 유쾌한 말들로 웃게 해주고 응원해준 동기들,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씀을 나눠주신 사랑방 교회 식구들 덕분에 나에게 지난 2020년은 참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꽤나 훌륭한 1년을 보냈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몸은 21살이지만 마음만은 20살로 맞이한 2021년도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힘든 시기이기에 학교 등교에 대한 로망은 고이 접어 두었지만 인터넷 매체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이론들을 배우는 것과 처음 보는 동기들과 수줍게 소통하는 것이 나름 즐겁다. 또 올해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학원 보조 선생님, 뷔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을 경험하며 일의 고단함과 소비의 짜릿함을 동시에 느끼며 지내고 있다. 다행히도 멧쟁이학교에서 상을 차리며 익힌 현란한 서빙 능력과 화장실 청소, 설거지 능력 등으로 굶은일도 큰 거부감 없이 해내는 모습에 좋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칭찬도 종종 들곤 한다. ^^

짧은 글이지만 주보 글을 쓰며 지난날을 되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 최근 나는 학교생활, 과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며 정해진 우선 순위 없이 바쁘게만 지낸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선순위로, 지혜롭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내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지금의 나에게 숙제로 남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힘든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공동체 학교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이 글을 통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이어람 / 석지인
설교자 : 정재훈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사도행전 2 : 17-18
187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미가서 7 : 18-1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191

이어직 / 이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창세기 45 : 1-15 서진솔 / 한민아
183 젊은이/늘푸른사랑방
“ 요셉의 마지막 해몽 ” 정재훈목사
< 성찬식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이돈희 / 조이서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574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진오 김소원 / 봉헌위원 : 한대훈 윤혜교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동기도문 저희가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요셉의 마지막 해몽

요셉의 울음. 요셉은 형님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설움이 북받쳐 오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던 나이가 17세. 30세에 총리가 되고 나서 9년이 지나 39세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고향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형들로부터 받은 거절이 상처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갑절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게 된 후에, 자신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삶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모두 잊어버렸고, 이곳에서 자손을 번성케 해주셨다 라고 자식의 이름을 통해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과의 재회 그리고 해몽.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형들과의 만남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형들과의 뜻밖의 재회는 옛 상처와의 직면이었고, 자기 앞에 었드린 형들의 모습은, 어릴 적 꿔던 꿈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트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적다는 화요일을 골라서 조심스레 가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적어서 마음 놓고 감상하고 놀다 왔습니다.

야외 설치 작품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각작품들을 보며 제목을 생각해보고 인물상의 표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표정을 보고 기분을 마음을 읽어내는 꾸러기들 눈이 어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설치작품 - 목마 미끄럼틀, 기린 그네, 벤치 시소, 그물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도 했습니다. 미끄럼틀이 정말 미끄러워서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 좀 무섭기도 했지만 돌고래는 발로 벽을 밀며 속도를 조절하고 꼬끼리는 아래에서 잡아주는 선생님을 믿고 탔습니다. 미끄럼이 말 모양이라서 자기들이 말똥이 된 것 같으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꼬끼리반 꾸러기들이 몸이 작아서 그물놀이터에서 잘 놀 수 있으려나 좀 걱정을 하며 갔는데 안왔으면 어쩔을까 싶게 정말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날씨 때문일까요? 감기 때문에 꾸러기들이 학교에 잘 오지 못했습니다. 아트파크에 다녀온 화요일에는 모두 왔지만 월요일에 한 명, 목요일에는 두 명이 못 왔고 금요일에는 결국 모두 집에서 쉬었습니다. 다음주에는 다들 회복되어서 모두 모이면 하려고 미루어둔 활동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수요일을 공휴일로 보내고 보니 좀 짧게 느껴지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린이학교는 월요일 1교시에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드리기에 더욱 거리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네 반, 네모하나와 네모둘에 각각 한 반씩 띄엄띄엄 앉고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서 개방감을 줍니다. 각 반별로 돌아가며 예배를 진행하는데, 설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인도자와 대표 기도를 맡은 어린이는 개방한 문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서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모두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적당한 발성으로 전달력도 연

5월 15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7일 월요일에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그라미를 풍선과 하트로 꾸미고 합주와 축하노래를 불러주고 반별로 선생님들 몰래몰래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정성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벤트를 기대하라며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기절하실 거라고 장담하는 친구들, 눈물 준비하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기절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만 대신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오실 수 없었지만 선물 준비해주신 부모님들, 며칠간 열심히 마음 모아 준비한 어린이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요즘 일교차도 크고, 매일 날씨도 오락가락해서인지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건강을 잘 살피고 무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은 말끔하게 얼른 낫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석가탄신일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수요일에는 쉬지 않고 학교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멋쟁이들이 스스로 바자회를 준비해서 열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년에 있었던 각종 부스와 옷, 잡화 등 바자회의 분위기가 나도록 꾸몄습니다. 멋쟁이들만의 바자회라서 많은 물건은 없었지만 다들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경매에서는 역시나 눈이 휘둥그레지는 물건들이 나와서 매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멋쟁이와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마니포도 있었습니다. 선물을 사면서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할지 필요한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마지막 선물을 증정할 때는 큰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미혼모를 돕는 단체인 사단법인 링커에 전달됩니다. 예년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멋쟁이들 스스로 준비하고 모았던 금액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어 보입니다. 진행하고 계획해 주었던 학생회.....

< 교사 : 이돈희 >

어김없이 돌아오는 주보글 쓰는 시간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벌써 여름의 문턱에 다가와 있다.

온 세상은 푸르고 푸른데. 우리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보며 예배를 드릴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 답답하다. 보고싶은 얼굴들도 많은데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쯤이런지 그놈에 코로나 때문에...

어제부터 내리던 보슬비가 오늘까지 내리고 있다.

올해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사월에 감자를 심고, 찜거리 씨를 파종하니 지금은 어느 정도 숙아서 먹을 만큼 자라서 찜을 먹기 시작했다.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오이와 호박은 종자를 내어서 심고, 토마토 참외 수박은 모종으로 심어서 어느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씨앗 때문에 힘들고 애태운 것이 있어 적어 보려 한다.

참고로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다 망쳐놓아서 참깨 종자가 없다. 종자를 구하려 이리저리 찾았지만 찾지를 못해서 중국산이라도 심어 보려고 한 흡을 사와서 심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느 권사님이 종자가 있다고 주셔서 그 종자를 받아서 심고 보니 그 종자가 19년 산 인지라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날마다 살펴보기 시작했다.....

보통 씨는 3일에서 5이면 싹이 트고 나오는데 이 씨앗은 5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5일, 6일이 지나고... 애태우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결국 종자를 파서 확인을 하기로 했다. 밭에 가서 종자를 파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 속에서 씨앗이 띄우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 싹을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다시한번 감사 드렸다.

이번 주가 젊은이주일이라는 생각에 학생들과의 추억이 떠올라 서랍을 열어 보니 몇쟁이 학생들이 노작 시간에 쓴 반성문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벌써 결혼을 하고, 결혼할 나이가 된 것이다. 반성문을 보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 반성문으로 책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오늘은 보슬비가 내리다 멈추어서 무엇을 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마침 어제 이번 주일 주보 글이라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쓴다.

우리 지체여러분 코로나 이겨내고 자유로이 만날때까지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이사야 11장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팔 평화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점차 심화되고, 가자지구 공습이 시작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팔레스타인의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폭력의 상황이 멈춰지고, 평화를 위한 회담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늘문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생명샘전인치유사역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2) 영치유, 혼치유, 육치유, 자연치유, 먹거리치유를 위한 힐링타운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연령별사랑방 주관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2) 공동체 식구들을 코로나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3) 공동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한 주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초목의 푸른 빛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공동체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마다 잎을 활짝 피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을 손질하시는 식구들의 노고로 잡초가 많이 있던 마당이 점차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석가 탄신일로 모두 쉬는 날이었습니다. 몇쟁이학교는 주간중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냥 쉬기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참으로 기특해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더욱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 정재훈 목사 >